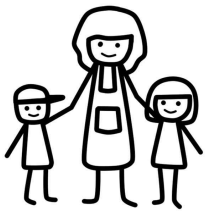




열번째 이야기

말씀이 살리는 가정!

[친밀하심을 따라⑦-그리스도인 자녀양육 세미나]



첫 아이는 내게 새로운 세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 차분한 설명도, 내 부드러운 말투도, 내 따뜻한 눈빛도 그 어떤 것도 쉽게 통하지 않는 존재와 함께하는 시간. 물론 순하고 착한 둘째, 셋째도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매번 한계에 부딪혔고 내 이성을 뛰어넘는 본성의 반응이 너무 자주 튀어나왔습니다. 자녀와의 실랑이가 늘어나면서 이런저런 육아 강의를 듣고, 정말 많은 육아서를 보고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실천하지 못했구나’ 하는 자책감과 ‘나는 사랑이 없구나’라는 좌절감만을 남겼습니다.

그즈음 성경 중심의 강의라고 소개받은 ‘그분이 지으신 마음’ 세미나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BEE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있었던 복음에 대한 질문들, 믿음, 행함, 전함, 용서 등 많은 영역에 대한 깊은 질문들이 해결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만나게 된 ‘그리스도인의 자녀양육’은 시작하기 전부터 내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방법을 말씀해 주

실지, 육아를 가장 힘들어하는 내게 왜 세명의 자녀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미리 훑어보던 학습서 목차에서 ‘사랑과 훈계’에 별도로 ‘고집 센 아이’라는 항목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집 센 아이의 부모 중 72%가 육아를 매우 힘들어 한다(순종적인 아이의 부모 육아 만족감 95%)라는 부분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이 힘든 마음이 아이의 기질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내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고집 센 아이로 인해 고민하며 울고 있을 때, 많은 이들이 ‘네가 더 OOO 하지 않아서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OOO 해서 아이가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야’ 등 다양한 말들과 눈빛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네게 준 아이는 강인한 의지를 가졌어.’라고 하시면서 보듬어 주시니 그제야 보였습니다. 정말 고집 센 나와 남편, 우리 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이 되는 ‘불편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방법들이 있는 필독서 안에 정말 모든 해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문제의 실마리를 얻은 후, 주변에 있는 많은 엄마들이 보였습니다. 관계, 기질, 태도, 관점, 상처 등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가 아이를 기르면서 철저하게 드러나 너무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에서, 커피숍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세미나를 소개하고 또 소개했습니다. 2018년부터 '그자녀'를 적극적으로 알렸고 정말 많은 엄마가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매시간 간증이 있었습니다. 원부모로부터의 받은 상처를 부모님의 최선으로 이해하게 된 엄마, 청소년기에 보호받지 못한 상처로 원망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던 엄마가 주님만 붙잡기로 작정했다는 엄마,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엄마,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했다는 엄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엄마, 다 큰 자녀도 훈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아빠, 다 자란 것 같은 성인 자녀에게 잘못을 고백했다는 엄마, 다양한 깨달음을 고백하는 얼굴들은 한결같이 밝았습니다.

2020년 비대면 상황에서 '그자녀'를 재수강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넷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를 기쁨으로 받지 못하는 마음을 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감춰져 있던 두려움과 부담감이 다시 불쑥 올라왔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자녀' 책을 펴고 적힌 성구를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시127:3).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22:6).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잠 1:7)



주님께서 더욱 많은 부모에게 '그자녀' 세미나로 인도하셔서 부모들을 권고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 사랑의 권고를 듣고 살아날 많은 가정을 품고 중보합니다.

[글쓴이 오정원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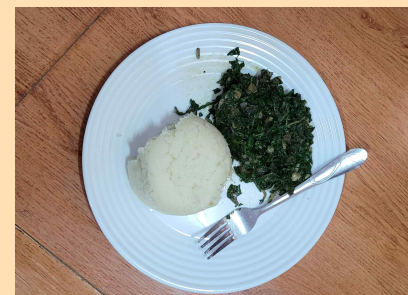


온누리 한강 공동체에서 많은 믿음의 가정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2017년 '그분이 지으신 마음' 수강 후, 온비와 '그리스도인의 자녀양육'을 수강하였다. '그자녀' 수강을 통해 말씀을 받은 경험으로 지금도 종종 책을 들춰보며 힘을 얻고 다른 이들에게도 소개하고 있다. 가족은 남편 전용우 집사와 4명의 자녀(주한, 주하, 준한, 준하)가 있다.

[정리: 이경주, 편집: 최선]



선교지  Kenya



[대표 음식: 우갈리(ugali, 작)와 수쿠마위키(sukuma wiki, 우)]

우갈리(ugali)는 우리의 주식인 쌀밥과 같은 존재로 옥수수가루에 뜨거운 물을 넣고 가열하여 만들어 우리나라의 백설기 떡과 비슷하지만 옥수수가루와 물로만 만들기 때문에 아무런 맛이 나지 않는다. 우갈리를 먹다보면 금세 포만감이 느껴지기에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은 아프리카에서 인기 있는 음식이다. 케냐 사람들은 우갈리를 먹지 않는다면 한 끼니를 먹지 않은 것 같다고 한다.

수쿠마위키(sukuma wiki)는 양파와 향신료로 조리한 동아프리카 요리로, sukuma는 스와힐리로 '밀다', wiki는 'a week'로 계절에 상관없이 구할 수 있고, 또 돈이 많이 없어도 한 주를 버티게 한다는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채소이다. 케일과 비슷하게 생겼고 우갈리와 함께 먹는다.

BEE 소식

1. 2021년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와 순종함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고 이웃과도 그 친밀함을 나누는 한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
2. 매일 아침 8시부터 시작하는 BEE 선교사역을 위한 중보기도! 한마음과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어지는 ‘5분 띠기도’, 지금 참여해요!
3. 매주 토요일 6:30, 비전홀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BEE 기도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해요!
4. 매주 토요일 이른 아침, 비전홀에서 찬양과 악기로 예배하는 예배팀과 함께할 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